

청소년의 가족분화와 걱정의 관계: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김 혜 원 임 지 현 이 지 연[†]
인천대학교

본 연구는 남녀 청소년의 가족분화가 걱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남녀 청소년 494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분화수준이 부적응적 완벽주의,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각각 미치는 영향이 모두 유의하였고,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였으며,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걱정에 미치는 영향도 각각 유의하였다. 둘째, 가족분화수준은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각각 단순 매개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이중매개로 걱정에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앞으로의 연구방향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가족분화, 걱정, 부적응적 완벽주의,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매개효과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지연,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2-1
Tel: 032-835-8160, E-mail: selfobject@naver.com

걱정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보편적 현상으로 나이와 발달 시기에 따라 걱정의 주제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 걱정은 비교적 사소한 심리적 과정으로 인식됨으로써 현재에 이르기까지 크게 연구의 초점으로 주목받지 못하였다(강문희, 정은의, 2003). 특히, 청소년기의 걱정은 ‘질풍노도의 시기’로 대변되는 청소년의 특성으로 인해 종종 간과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유예리, 2005). 그러나 걱정이 과도해지고 통제할 수 없다고 느껴지면 개인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부적응과 불안을 유발하게 되어 병리적인 범불안장애로 발전할 수 있음이 여러 연구를 통해 보고되었으며(신여운, 현명호, 2004; Muris, Meesters, & Gobel, 2001; Olatunji, Scottenbauer, Rodriguez, Glass, & Arnkoff, 2007), DSM-V(2013)에서는 ‘과도한 걱정’ 자체가 범불안장애의 핵심 진단 기준이 되었다. 즉, 걱정은 ‘부정적 정서와 관련되고, 상대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일련의 사고와 심상’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할 수 있고(Borkovec, Robinson, Pruzinsky, & Depree, 1983), 불안과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된다(이영선, 박선영, 2009).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걱정을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외상적 사건을 막고, 효과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정신적인 문제 해결 과정’으로 보기도 하여(Hunt, Wisocki, & Yanco, 2003), 걱정이 불안과는 다른 개념이고, 걱정에 기능적 측면과 역기능적 측면이 모두 포함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의 문제 해결적 속성조차도 개인의 특성, 상황 특성 및 인지적 오류 등과 같은 내적 변인들에 의해 과도한 걱정으로 변질될 수 있기에(Davey, 1994; Roemer & Orsillo, 2002), 과도한 걱정을 발생시키고 유지시키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사실상 범불안장애는 10대 중반~20대 초반에 발생하여 대체로 만성적인 경과를 나타내며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 증세가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권석만, 2015). 이와 관련하여, 걱정 수준이 높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살펴본 연구에서도 과도한 걱정 증상이 청소년 후기부터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Fournier, Freeston, Ladouceur, Dugas, & Guvin, 1996). 더욱이 청소년의 불안장애가 80년대 이후 매년마다 증가추세에 있고(소아정신의학, 1993; 강문희, 정은의, 2003에서 재인용), 10대 청소년들의 불안장애가 급증한다는 것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메디컬투데이, 2006. 10. 24)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걱정이 불안장애의 중요한 하위영역인 점을 고려할 때, 불안장애가 증가한다는 것은 곧 걱정을 많이 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정신과 치료경험이 전혀 없는 정상집단에서 약 30% 정도의 청소년들이 높은 수준의 걱정을 보인다고 하였는데(Bell-Dolan, Last, & Strauss, 1990), 이는 기본적인 일상 기능을 잘 해나가는 청소년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이로 인해 심리적 불편감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걱정에 대한 국내외 연구는 주로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고, 비임상집단의 경우에는 대부분 대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강문희, 정은의, 2003). 따라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걱정 증상과 관련된 변인 및 그 기제를 이해하는 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기의 적응 뿐 아니라 성인기의 불안장애 예방을 위해서도 중요한 치료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아동기 때보다 학업 및 대인 관계적 측면에서 복

잡해지고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확률이 높아져 불안 및 걱정 수준이 증폭되는 시기이므로(연은지, 김향숙, 2013; 이민경, 김은정, 2013), 청소년들의 걱정에 대해 미리 예방적 개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걱정이 단일한 하나의 요인에 의해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들이 함께 연관된다는 주장(Kertz & Woodruff-Borden, 2011)에 근거하여, 청소년들의 걱정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 그 기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청소년 시기의 걱정을 살펴보면 있어서 먼저 이 시기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청소년기의 발달은 신체뿐만 아니라 심리적 변화를 특징으로 들 수 있는데,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신체의 성숙에 적응해 가면서 차차 부모에게서 자립을 시작하게 된다. 또한, 이 시기는 아동기에 형성한 자기상의 일부를 확립해 가면서 새로운 자아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시기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는 자립과 의존의 갈등이 표면화되는데,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의 성장에 적합한 형태로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이 단계의 가족을 둘러싼 중심과제는 부모-자녀관계의 재정립에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부모가 청소년기 자녀와 서서히 분화를 촉구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 다세대 가족치료에서는 이전 세대로부터 분화되지 못한 미분화상태는 불안을 발생시킨다고 하였다(김유숙, 2015). 걱정 및 불안에 대한 여러 경험적 연구들도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환경 요인 가운데 부모의 양육태도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문경주, 오경자, 2002; 이민경, 김은정, 2013; Ballash, Leyfer, Buckley, & Woodruff-Borden, 2006; McLeod,

Wood, & Weisz, 2007). 또 다른 경험적 가족 연구들도 불안장애가 가족구성원에 의해 강화된다고 보고하였다(Beidel & Turner, 1997; Last, Hersen, Kazdin, Francis, & Grubb, 198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관계의 재정립시기인 청소년 시기에 부모-자녀관계 및 가족구성원의 영향 등을 포함하여 가족의 영향이 청소년들의 걱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구성원들의 상호작용하는 방식(김유숙, 2015; 정문자, 정혜정, 이선혜, 전영주, 2009)이 걱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하였고, 이러한 가족의 정서적 역동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개념인 가족분화(남순현, 2000)를 통해 걱정에 미치는 가족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족분화는 “친밀성(연결)과 자율성(분리)의 균형의 정도를 조정해주는 가족 내 상호작용 유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Anderson & Sabatelli, 1990). 즉, 가족분화수준이 높다는 것은 가족 안에서 개인의 정서적 자율성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들 간의 정서적 유대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자기분화수준이 낮다는 것은 가족구성원끼리의 지나친 분리성이나 연결성으로 인해 긴장과 불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Knudson-Martin, 1994). 보다 구체적으로, 남순현(2000)은 가족분화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구성원들의 갈등이 적고, 가족 관계 내에서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며, 심리적인 안녕감을 유지하는 반면, 가족분화수준이 낮을수록 가족구성원들의 갈등이 많고, 불안정한 관계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야기하며, 심리적인 불편감을 지닌다고 하였다. 결국 가족분화수준이 실제 가족관계에서의 만족과 갈등의 정도 및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나타내는 가족 기능의 객관적인 지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분화수준에 따른 경험적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Anderson과 Sabatelli(1992)는 부모와의 가족분화수준이 높을수록 불안과 우울을 덜 경험한다고 보고하였고, Gavazzi(1993)는 가족분화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가족 내 문제, 학교에서의 문제, 친구관계의 문제, 비행행동 등을 덜 보인다고 하였다. 이외에 이미경(2006)은 가족분화 수준이 높은 청소년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대인관계 적응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가족분화수준이 개인이 처한 발달단계에서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가족분화수준이 걱정과 부정적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해볼 수 있다. 그런데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가족분화에 대한 연구 자체가 적은 편이고, 가족분화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성인집단의 대학생(김지훈, 2006; 남궁별희, 2015) 혹은 기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 왔으며(김병화, 2013; 김태희, 2008; 이향희, 2012),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분화를 살펴본 국내 연구는 이미경(2006)의 연구를 제외하고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가족분화는 성인이 된 후 어느 한 시점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동기를 거쳐 청소년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서서히 이루어진다(남순현, 2000). 더욱이 청소년기에 가족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분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가족관계로 인한 걱정과 불안 수준이 높아져 그 시기에 이루어야 할 과업들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가족분화수준이 걱정과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한편 가족분화수준이 부모자녀관계의 건강

성을 나타내는 변수이므로(이향희, 2012), 가족분화가 부모자녀 애착관계와 관련성을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김용태(2000)는 분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안정 애착이 형성됨을 설명하며 둘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언급하였다. 황영훈과 박은영(2003)도 애착이론과 자아분화이론을 비교하며, 두 이론이 각각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개인의 발달에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력을 다른 학술적 용어로 설명하지만 실질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은 상당히 유사하다고 하였다. 박상숙(2013) 또한 애착이론에서 언급하는 불안정 애착 유형을 보이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분화이론에서 언급하는 낮은 분화수준을 보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였다. 그런데 애착 변수는 결과변수에 직접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다른 긍정적인 기능에 영향을 끼쳐 결과변수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매개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애착의 영향력이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많은 매개변인들이 포함된 경우에도 여전히 애착의 영향력이 유의미할 가능성이 있다(Sroufe, 2005). 따라서 가족분화 수준 역시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결과변수인 걱정과 직접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다른 매개변인을 거쳐 간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애착 관련 연구 및 개인의 애착관련 내적 작동 모델이 가동되는 구체적 경로가 매우 복잡하다는 이론적 주장(Cook, 2000; Hamilton, 2000; Lewis, Feiring, & Rosenthal, 2000)을 참고하여, 가족분화수준이 걱정과 미치는 과정에도 여러 매개변인들이 관여할 수 있음을 가정하고, 그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상담에서도 매개효과가 나타났을 때 치료적 중재를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주는데(Culp & Beach, 1993; 최미례, 이인혜, 2003, 재인용), 그것은 매개효과가 나타난 영역에서 적절한 중재가 이루어져 매개효과를 줄일 수 있다면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본 연구에서 가족분화수준이 걱정으로 이행되는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영향력이 있는 매개변인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 매개변인에 집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가족분화수준이 걱정으로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족분화, 부적응적 완벽주의, 걱정의 관계

먼저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인으로 청소년의 가족분화수준이 걱정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부적응적 완벽주의자들은 불가능한 목표 기준을 세우고, 이에 대해 강박적인 압박을 느끼며, 성취욕구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Burns, 1980; Slaney, Ashby, & Trippi, 1995). 이러한 완벽주의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 가운데 하나가 부모와의 상호작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지훈(2006)은 가족분화수준이 낮으면, 즉 부모와 자신을 지나치게 동일시하거나 자율성이 저해되면, 자신의 주관대로 살기보다 부모가 부과한 승인조건에 따라 자신을 평가하고 염려하는 부적응적인 완벽주의를 보일 수 있다고 하였다. Barrow와 Moore(1983)도 가족분화수준이 낮으면 개인의 내적 특성인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다고 하였고, 이러한 부적응적 완벽주의 특성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청소년 시기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외에 대다수의 학습 이론가들도 완벽주의를 어린 시절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나온 학습된 행동이라고 보았다(Pacht, 1984).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청소년의 가족분화수준이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해볼 수 있다.

한편 선행연구들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걱정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보고되었다(유성진, 권석만, 2000; 이영선, 박성연, 2009; 허은정, 2005; Stöber & Joormann, 2005; Stöber, Tepperwien, & Staak, 2000). 즉,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실수에 대한 염려와 수행에 대한 의심에 의하여 동기화되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 오지에(2015)도 완벽주의 성향을 지닌 대학생들의 경우, 높은 이상적 자기를 설정함으로써 실제적 자기와의 불일치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결국 심리적인 불편감과 자신의 실수나 실패 등에 대한 걱정이 크다고 보고하였다. 이외에도 여러 국내외 연구자들이 완벽주의와 대인불안의 관련성을 언급하였는데(김병직, 이동귀, 이희경, 2012; 설희정, 2013; 송은영, 하은혜, 2008; 정윤주, 2012; Pacht, 1984; Rosser, Issakidis, & Peters, 2003), 이를 통해서도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걱정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추론해볼 수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통해, 청소년의 가족분화수준이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영향을 미치고,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걱정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선행연구들 가운데 가족분화, 부적응적 완벽주의, 걱정 변인의 부분 관계들을 살펴본 연구들은 일부 있으나 이 변인들을 하나의 모형 안에서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분화, 부적응적 완벽주의, 걱정 변인을 하나의 모형 안에서 살펴보고자 하였고, 가족분화와 걱정의 관계 속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역할을 규명하는데 더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가족분화,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걱정의 관계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변인에 주목하였다. 인지행동모델에서는 스트레스와 같은 맥락적 요인이 인지도식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는데, 이는 결국 스트레스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같은 인지처리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Rodriguez & Richardson, 2007). 여기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란 불쾌한 정서와 같이 정서적 각성을 일으키는 정보가 있을 때, 이를 인지처리과정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Garnefski & Kraaij, 2006), 이는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수용, 긍정적 초점 변경, 긍정적 재평가, 조망 확대, 계획 다시 생각하기)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자기비난, 타인비난, 반추, 파국화)의 9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된다(Garnefski, Kraaij, & Spinhoven, 2001). 비록 선행연구 가운데 가족분화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직접적인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없지만,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자아분화수준이 낮을수록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한다고 밝힌 조성현(2011)의 연구가 있다. 또한, 가족분화수준이 낮을수록 가족관계 내에서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언급한 남순현의 연구(2000), 분화수준이 높지 않은 경우에 스트레스를 쉽게 받고, 불안해하며 개인의 성장을 방해하는 대처전략을

사용한다는 연구(Gavazzi & Sabatelli, 1990) 및 낮은 수준의 가족분화가 개인의 인지적·정서적 차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Allison & Sabatelli, 1988) 등이 있다. 결국 선행 연구들을 통해 낮은 가족분화수준이 높은 스트레스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높은 스트레스 수준은 개인이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설정훈, 박수현, 2015; 최우경, 김진숙, 2014; Rodriguez & Richardson, 2007). 따라서, 청소년들이 낮은 가족분화수준을 경험할 경우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결과적으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보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기 쉽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다양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될 때, 이를 조절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경험을 처리하는 과정을 왜곡하기 쉽게 만들고, 정서경험에 대한 반응 조절에 실패하게 하여 우울·불안 등의 심리증상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김보미, 유성은, 2012; 최우경, 김진숙, 2014; Garnefski & Kraaij, 2007; Gross, 2001). 이와 관련하여, Hirsh, Clark 및 Mathews(2006)도 아동의 인지적 전략이 걱정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고, 인지적 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결함이 부정적 정서에 동반되는 부산물이라기보다, 부정 정서를 유발 및 지속시킬 수 있는 취약성 요인임을 밝힌 연구들도 있다(육근영, 2016; Disner, Beevers, Haigh, & Beck, 2011; Peckham, McHugh, & Otto, 2010). Mennine, Heimberg, Turk 및 Fresco(2005)도 범불안장애를 지닌 환자들이 정서각성 및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보인다는 정서조절곤란 모델을

주장하며 개인의 정서조절적인 특성이 걱정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님을 설명하였다. Watkins (2008)도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할 경우, 자신의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해 심리적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어떠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부정적 정서가 증가 혹은 감소된다는 것(Garnefski et al, 2001)을 알 수 있고, Hofmann, Heering, Sawyer 및 Asnaani(2009)도 정서의 발생, 강도, 지속기간, 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정서조절(emotion regulation)’이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서도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걱정의 빈도 및 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볼 수 있다.

그런데 가족분화수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걱정 변인을 이용한 연구 자체가 적고, 이와 관련된 연구들마저도 각각의 변인들의 부분적인 관계만을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분화,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걱정 변인을 하나의 모형 안에서 살펴보고자 하였고, 가족분화와 걱정의 관계 속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역할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사실상 청소년기는 뇌의 성장이 가속화되는 시기로, 특히 정서의 인지적 통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전두엽 기능이 완성되어 가는 시기이다(Fuster, 1997; Goldman-Rakic, Chafee, & Friedman, 1993). 즉, 청소년기는 성숙한 수준의 인지 처리가 시작되어 자신의 정서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는 시기인 동시에 정서를 통제하는데 있어서 오류를 겪을 소지가 많은 시기이기도 한 것이다(연은지, 김향숙, 2013). 따라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즉 정서조절의 인지적 특성이 걱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청소년의 걱정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정보제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가족분화수준이 걱정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각각 매개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더 나아가 이 두 매개요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즉 가족분화수준이 걱정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선행하는 이중매개효과를 가정하였다. 이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하위변인인 자기비난(손은정, 2010; 이은지, 서영석, 고은영, 이소연, 최바울, 2013; Gilbert, Durrant, & McEwan, 2006) 및 파괴화(정지현, 2000; Davey & Levy, 1998)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평가염려 완벽주의자들이 정서조절전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 고통을 겪는다는 Aldea와 Rice(2006)의 연구, 모든 완벽주의 차원이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하위차원과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고희경(2006)의 연구,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자기비난 및 심리적 고통을 거쳐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Baumeister(1990)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가족분화수준과 부적응적 완벽주의 및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걱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나아가 변인들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청소년의 걱정에 미치는 가족분화수준의 직접적인 영향과 함께 가족분화수준이 걱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걱정을 유발하거나 유지시키는 심리과정으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인지

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역할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걱정의 발생과 유지요인을 밝혀 궁극적으로 과도한 걱정의 감소 및 예방을 위한 적절한 치료적 개입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그림 1)은 청소년의 가족분화수준이 걱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각각을 통해 그리고 이 두 변인들의 이중매개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 부분매개모형이다. 경쟁모형(그림 2)은 연구모형과 다른 경로는 동일하고, 가족분화수준이 걱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생략된 모형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가족분화, 부적응적 완벽주의,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걱정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의 가족분화와 걱정의 관계를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매개하는가? 셋째, 청소년의 가족분화와 걱정의 관계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이 매개하는가? 넷째, 청소년의 가족분화와 걱정의 관계를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이 이중매개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경기도권 소재 4개 학교의 일반 고교생 52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494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가운데 남학생은 283명(57.3%), 여학생 211명(42.7%)이었으며, 1학년이 324명(65.6%), 2학년이 151명(30.6%), 3학년이 19명(3.8%)이었다.

측정도구

가족분화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가족분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Anderson과 Sabatelli(1992)가 개발하고 남순현과 한성열(1999)이 번안한 가족분화척도(The Differentiation In The Family Sc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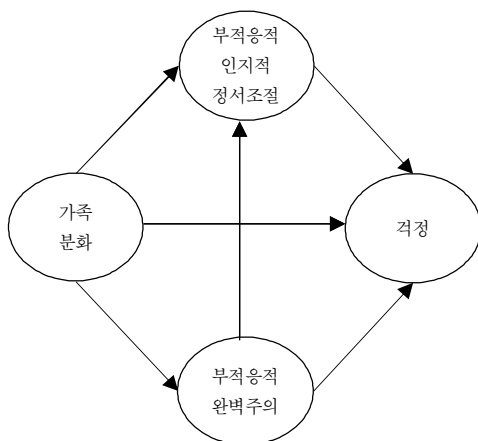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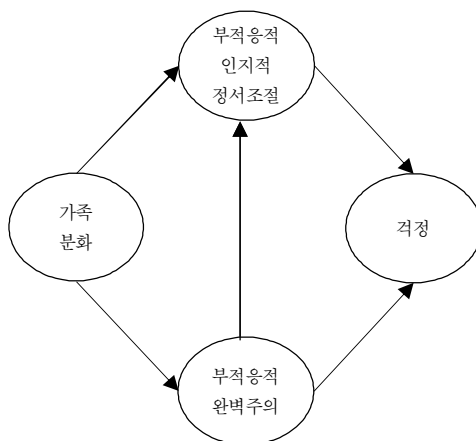


그림 2. 경쟁모형

DIFS)를 이용하였다. 가족분화척도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부모님의 지각(11문항, 예: 부모님은 내 견해가 부모님의 견해와 다르더라도 존중한다.)과 부모님의 행동에 대한 본인의 지각(11문항, 예: 나는 부모님의 견해가 내 견해와 다르더라도 존중한다.) 2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 22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항상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분화가 잘 이루어져 있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분화척도의 Cronbach's α 는 김태희(2008)의 연구에서는 .91, 본 연구에서도 .91로 나타났다.

부적응적 완벽주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하여 Frost, Marten, Larhart 및 Rosenblate(1990)가 개발한 다차원적 완벽주의(Frost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FMPS) 척도를 한기연(1993)이 번안한 척도 가운데 부적응적 완벽주의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부적응적 완벽주의 척도는 실수에 대한 염려(9문항, 예: 내가 실수를 하면 나에게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낮아질 것이다.), 수행에 대한 의심(4문항, 예: 무슨 일을 내 마음에 들게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무척 오래 걸린다.), 부모기대(5문항, 예: 나의 부모님은 내가 뛰어나길 기대하신다.), 부모비난(4문항, 예: 나의 부모님은 나의 실수를 결코 이해하려하지 않는다.)의 4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항상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부적응적 완벽주의 척도의 Cronbach's α 는 한기연(1993)의 연구

에서 .87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Garnefski(2001)가 개발하고 김소희(2004)가 번안한 인지적 정서조절 척도(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CERQ)의 하위요인 가운데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척도는 자기비난(4문항, 예: 그 일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타인비난(4문항, 예: 그 일이 일어난 것은 다른 사람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반추(4문항, 예: 그 상황에서 일어났던 나의 감정을 되짚어 생각한다), 파국화(4문항, 예: 내가 겪은 일이 얼마나 끔찍한지에 대해 계속 생각한다)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Cronbach's α 는 김소희(2004)의 연구에서 .87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89로 나타났다.

걱정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걱정을 측정하기 위하여 Meyer, Miller, Metzger 및 Borkovec(1990)이 개발한 펜실베이니아 걱정증상 질문지(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PSWQ)를 김정원과 민병배(1998)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걱정 척도는 범불안장애의 주증상인 만성적이며 통제 불가능한 걱정의 빈도 및 강도를 측정하는(예: 걱정이 나를 누른다)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항상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걱정이 많음을 의미한다. 걱정 척도의 Cronbach's α 는 김정원과 민병배(1998)의 연구에서 .88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9.0과 AMOS 21.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분석했다. 첫째, 가족분화수준, 부적응적 완벽주의,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걱정 각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했다. 둘째, 연구변인의 경향성과 정상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확인했다. 셋째,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Pearson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했다. 넷째, 가족분화수준이 걱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매개모형을 설정하고,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여 매개모형의 적합도 및 잠재변인 간 경로계수를 산출하였다.

본격적인 모형 검증에 앞서, Russell, Kahn, Spoth와 Altmaier(1998)의 제안에 따라 문항 꾸러미(item parcels)를 제작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잠재변수 별로 최대우도법을 이용하여 단일요인을 가정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고, 요인부하량이 .30미만인 문항은 분석에서 제외시켰다(가족분화 10번, 21번, 걱정 1번, 8번, 11번 문항). 이는 표준 요인부하량의 기준이 .30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에 근거하였다(Hair, Anderson, Tatham, & Black, 1992). 그런 후, 부적응적 완벽주의, 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은 각각 4개의 하위척도를 측정변수로 이용하여 잠재변인을 구성하였고, 걱정은 각 꾸러미가 잠재변수에 동일한 부하량을 갖도록 하여 4개의 꾸러미로 구성하였고, 가족분화수준은 2개의 하위척도를 반분한 후, 총 4개의 측정변인을 이용하여 잠재변인을 구성하였다. 보통 측정변인의 수가 2개인 경우 Heywood Cases가 발생하거나 Amos가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조영일, 2016).

구조모형 검증은 구조방정식의 2단계 접근법(Anderson & Gerbing, 1988)에 따라 진행했다. 우선,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히 구인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했다. 다음으로, 구조모형의 전체 적합도 및 각 경로의 유의도를 확인했다. 모형의 적합도는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여 영가설을 쉽게 기각할 수 있는 χ^2 값 이외에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Comparative Fit Index)와 TLI(Tucker-Lewis Index),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함께 확인했다. 이때, CFI와 TLI가 .90 이상이고(Bentler, 1990), RMSEA가 .10 이하이면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판단했다(MacCallum, Browne, & Sugawara, 1996).

그 뒤, 가족분화와 걱정 사이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간접 효과에 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Shrout & Bolger, 2002)을 실시했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는 다중 매개 효과 검증 시 개별 간접 효과에 관한 추정치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팬텀변인(phantom variable)을 설정한 후 부트스트랩 절차를 통해 변인들의 개별 간접 효과를 확인했다(배병렬, 2011). 부트스트랩 절차는 Shrout

와 Bolger(2002)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본 연구의 원자료(N=494)로부터 무선헌당으로 만들어진 10000개의 표본에서 간접 효과를 추정했고, 간접 효과의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때, $\alpha=.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결 과

각 변인별 기술통계 및 상관

모형검증에 앞서, 측정 변수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 그리고 변수 간 상관계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각 변인들이 정상분포조건을 충족시키

표 1. 주요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변수 간 상관계수($n=49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분화1	1															
2. 분화2	.82**	1														
3. 분화3	.67**	.67**	1													
4. 분화4	.73**	.70**	.79**	1												
5. 실수염려	-.39**	-.40**	-.40**	-.44**	1											
6. 수행의심	-.31**	-.32**	-.29**	-.37**	.66**	1										
7. 부모기대	-.38**	-.39**	-.31**	-.35**	.58**	.45**	1									
8. 부모비난	-.59**	-.58**	-.50**	-.58**	.62**	.54**	.59**	1								
9. 반추	-.12**	-.19**	-.14**	-.20**	.44**	.59**	.30**	.31**	1							
10. 자기비난	-.23**	-.27**	-.28**	-.31**	.49**	.55**	.31**	.38**	.70**	1						
11. 타인비난	-.16**	-.16**	-.14**	-.21**	.30**	.26**	.21**	.30**	.23**	.15**	1					
12. 파국화	-.31**	-.38**	-.32**	-.38**	.53**	.54**	.43**	.49**	.65**	.62**	.37**	1				
13. 걱정1	-.24**	-.26**	-.17**	-.24**	.41**	.47**	.26**	.29**	.46**	.43**	.08	.41**	1			
14. 걱정2	-.27**	-.30**	-.20**	-.26**	.43**	.47**	.25**	.33**	.43**	.38**	.07	.41**	.80**	1		
15. 걱정3	-.33**	-.36**	-.25**	-.33**	.49**	.55**	.29**	.44**	.47**	.42**	.18**	.50**	.74**	.74**	1	
16. 걱정4	-.28**	-.32**	-.22**	-.29**	.52**	.56**	.33**	.39**	.52**	.46**	.15**	.52**	.79**	.81**	.79**	1
평균	3.67	3.82	3.69	3.70	2.52	2.87	2.55	2.05	3.02	2.74	2.22	2.37	2.55	2.43	2.43	2.79
표준편차	0.92	0.89	0.81	0.82	0.88	0.97	1.01	.93	0.94	0.90	0.78	0.99	0.77	0.79	0.78	0.79
왜도	-.61	-.86	-.70	-.76	.57	.15	.52	.95	-.07	.18	.40	.52	-.30	-.21	.33	.03
첨도	-.05	.51	.93	.69	-.20	-.64	-.41	.38	-.42	-.24	-.09	-.35	-.59	-.56	-.79	-.87

주. * $p < .05$, ** $p < .01$

가능한 점수 범위: 가족분화(1~5), 부정응적 완벽주의(1~5), 부정응적 인지적 정서조절(1~5), 걱정(1~5)

지 못할 경우, 연구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그런데 구조방정식 모형에서의 정상분포곡선(왜도 < 2, 첨도 < 4)을 고려했을 때(Hong, Malik, & Lee, 2003),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는 구조 방정식 모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정상분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VIF 지수를 살펴보았다. 예측 변인 간 상관이 클수록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우려되는데(Marsh, Martin, James, & Richard, 2004), 본 연구에서는 걱정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나머지 변인들의 VIF지수를 확인해 본 결과, 1.42~2.08까지 분포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우려될 수준 VIF >10(송병호, 최규정, 2000)이 아님을 알 수 있고, 결과적으로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체적으로 변수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특히,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이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내었고($r=.63$), 가족분화와 부적응적 완벽주의($r=-.54$),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걱정($r=.54$) 및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과 걱정($r=.54$)도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다. 그 외에, 가족분화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r=-.35$)과 가족분화와 걱정($r=-.33$)도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측정모형 검증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16개의 측정변수들이 청소년들의 가족분화, 부적응적 완벽주의,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걱정 총 4개의 잠재변수를 적절히 구인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AMOS를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df=98, N=494) = 581.33, p < .001, CFI = .91, TLI = .90, RMSEA = .10$ (90% 신뢰구간 .092~.108). 따라서 수정지수를 이용하여 수정지수가 크면서 오차공분산 설정이 허용가능한 경우인 오차공분산의 경로(가족분화3, 가족분화4)를 추가하였다. 사실상이 경우는 하나의 하위척도를 2개의 측정변수로 나누어 구성한 경우로서 유사내용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오차공분산 설정이 허용 가능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조영일, 2016; 홍세희, 2011). 그 결과, $\chi^2(df=97, N=494) = 480.28, p < .001, CFI = .93, TLI = .92, RMSEA = .09$ (90% 신뢰구간 .082~.098)로 나타나 비교적 괜찮은 적합도를 보였다. 이후, 하나의 하위척도를 두 개의 측정변수로 나누어 구성한 가족분화1과 가족분화2의 오차공분산도 추가하였다.

최종적으로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df=96, N=494) = 471.28, p < .001, CFI = .93, TLI = .92, RMSEA = .089$ (90% 신뢰구간 .081~.097)로 나타나 괜찮은 적합도를 보였다. 최종 측정모형에서 측정변수들은 잠재변수에 .32~.92까지 적재된 것으로 나타났고, 모두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측정변수에 대한 잠재변수의 요인 부하량은 가족분화는 .79~.85,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66~.83,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은 .32~.82, 걱정은 .85~.92로 나타났다.

구조모형 검증

청소년의 가족분화를 예언변수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을 매개

변인으로, 걱정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이 경험적 자료와 잘 맞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설정하여 적합도를 검증하였고,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괜찮은 적합도를 보였다: $\chi^2(df=96, N=494)=471.28, p<.001, CFI=.93, TLI=.92, RMSEA=.089(90\% \text{ 신뢰구간 } .081\sim.097)$. 경쟁모형을 검증한 결과, 연구모형과 비슷한 적합도를 보였다: $\chi^2(df=97, N=494)=471.28, p<.001, CFI=.93, TLI=.92, RMSEA=.088(90\% \text{ 신뢰구간 } .081\sim.097)$. 본 연구에서는 경쟁모형이 연구모형에 내재되어 있으므로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하여 직접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χ^2 의 차이값은 0으로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보다 간명한 모형인 경쟁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최종모형 검증

최종모형을 검증한 결과, 5개의 직접 경로가 모두 유의하였다. 최종모형의 표준화된 경로계수와 모수 추정 결과는 표 3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beta=.85$). 다음으로 가족분화가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미치는 영향($\beta=-.65$),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이 걱정에 미치는 영향($\beta=.38$),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걱정에 미치는 영향($\beta=.34$), 가족분화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beta=.17$)이 모두 유의하였다.

매개효과 검증

최종 다중 매개모형의 개별 매개효과에 대

표 2.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χ^2	df	TLI	CFI	RMSEA(90% 신뢰구간)
연구모형	471.28	96	.92	.93	.089(.081~0.097)
경쟁모형	471.28	97	.92	.93	.088(.081~0.097)

표 3. 최종모형의 모수 추정 결과($n=494$)

	경로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 오차	t
가족분화	→ 부적응적 완벽주의	-0.50	-0.65	0.04	-12.00***
가족분화	→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0.13	0.17	0.05	2.71**
부적응적 완벽주의	→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0.89	0.85	0.08	11.51***
부적응적 인지적정서조절	→ 걱정	0.33	0.38	0.06	5.50***
부적응적 완벽주의	→ 걱정	0.31	0.34	0.06	4.92***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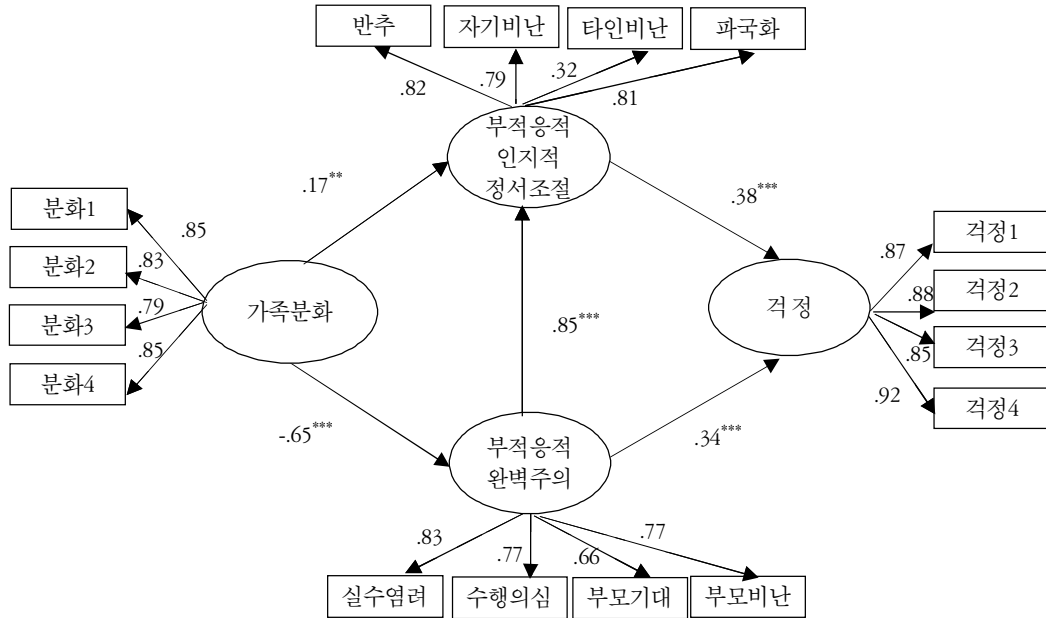


그림 3. 최종모형

* $p < 0.5$, ** $p < .01$, *** $p < .001$,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

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을 실시하기 위해 팬텀변수를 사용한 접근법(Chan, 2007)을 사용하였고,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때, $\alpha=.05$ 수준에서 간접효과가 유의하다고 판단하는 Bootstrap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최종모형에서 가족분화와 걱정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비표준화계수는 $-.15$, 95% Bias-corrected CI=[$-.223, -.089$]로 유의하였고, 가족분화와 걱정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비표준화계수는 $.04$, 95%

표 4. 부스트래핑을 통한 간접효과 분석 결과($n=494$)

경로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가족분화	→	부적응적 완벽주의	→	걱정	-0.154* (-0.223~-0.089)		
가족분화	→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	걱정	0.044* (0.01~0.092)		
가족분화	→	부적응적 완벽주의	→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	걱정	-0.147* (-0.226~-0.089)

* $p < .05$, ** $p < .01$, *** $p < .001$

Bias-corrected CI=[.01, .092]로 유의하였으며, 가족분화와 걱정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이중매개효과의 비표준화계수는 -.15, 95% Bias-corrected CI=[-.226, -.089]로 유의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분화수준이 걱정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역할을 규명하고, 청소년들의 걱정 증상과 관련된 변인 및 그 기제를 이해하는 연구를 통해 청소년들의 불안장애 예방 및 걱정을 감소시키기 위한 적절한 치료적 개입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가설모형의 적합도 및 매개변인들의 간접효과를 검증한 결과, 경쟁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분화수준이 걱정으로 가는 직접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두 변인의 관계를 부적응적 완벽주의 및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이 완전 매개하는 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모형에서의 결과를 중심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분화수준이 높을수록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분화수준이 낮을수록 부모가 부과한 승인 조건에 따라 자신을 평가 및 염려하는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보일 수 있다고 언급한 김지훈(2006)의 연구, 가족분화수준이 낮으면 개인의 내적 특성인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다고 언급한 Barrow와 Moore(1983)의 연구 및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

착관계와 낮은 가족분화수준이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높인다는 선행 연구 결과(유미숙, 하은혜, 김혜진, 2004)와 일치한다.

그런데 최종모형의 검증 결과, 선행연구를 통해 예측했던 방향과 반대로 가족분화수준이 높을수록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분화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이 상관분석에서는 부적의 관계($r=-.35$)를 보인데 반해, 구조모형에서는 가족분화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상관분석과 구조모형에서 변인들 간 관계의 방향이 달라지는 현상은 구조방정식을 이용해 분석한 다른 연구들(예: 김혜원, 2015; Brassard, Lussier, & Shaver, 2009)에서도 역시 나타난다. 본 연구결과와 선행 연구 결과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두 변인 간의 관계가 매개변인 및 다른 변인의 투입 여부에 따라 정반대 방향의 상이한 결과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최종모형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개입으로 가족분화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관계 방향이 바뀌어 나올 수 있었음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 서구의 개인주의적 이데올로기 문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상담 이론으로 본다면, 한국의 부모-자녀 관계는 지나치게 밀착·융합되어 있는 역기능적 관계이고, 이로 인해 자녀들이 많은 심리적 문제를 겪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지만(최인재, 2006), 사실상 한국을 비롯한 동양 문화권에서는 ‘개별성’보다 ‘관계성’이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크다는 것이다(김동직, 1999). Tamura와 Lau(1992)도 가족구성원 간의 화목한 관계 유지를 강조하는

동양 문화권에서는 미분화보다 통합이나 연결이 되지 못했을 때 오히려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통해, 문화권에 따라 가족의 분화된 상태의 양상(예: 관계성과 개별성이 모두 높은 경우, 관계성은 높고 개별성은 낮은 경우, 관계성은 낮고 개별성은 높은 경우, 관계성과 개별성이 모두 낮은 경우)에 따른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족분화수준이 낮은 경우의 양상(예: 높은 관계성만 있는 경우, 높은 개별성만 있는 경우)에 따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미치는 영향이 상반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이 본 연구에서 예측했던 것과 반대방향의 결과를 이끄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개별성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고, 이의 가능성에 대한 경험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야 하며, 가족분화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해 보인다. 더욱이 가족분화 개념을 이용한 연구자체가 제한적이므로, 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후속 연구들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다음으로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하위변인인 자기비난(손은정, 2010; 이은지 외, 2013; Gilbert et al., 2006) 및 파국화(정지현, 2000; Davey & Levy, 1998)에 영향을 미치고, 역기능적 완벽주의 성향을 지닐수록 인지적 왜곡을 많이 보이며(박현주, 1999), 고등학생들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방략이 높은 관련성을 나타낸다는 연구결과(김용남, 2014) 및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방략의 정적상관을 보고한 연구(고희경, 2006; 연은지, 김향숙, 2013)와 흐름을 같이한다. 이외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적응적이고 기능적인 완벽주의자들은 보다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여 심리적 고통을 덜 경험하지만, 부적응적이고 역기능적인 완벽주의자들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여 더 큰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김아름, 조한익, 2015; 한주연, 박경, 2011; Aldea & Rice, 2006; Rudolph, Flett, & Hewitt, 2007). 따라서 실수에 대한 염려, 부모 기대, 부모 비난, 수행에 대한 의심 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인지적 유연성은 떨어지며, 결국 상황의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므로써 실패의 원인을 자신 혹은 타인의 탓으로 돌리거나 계속 강박적으로 실패를 곱씹거나 더욱 파국적인 결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걱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걱정에 대한 주요 예측변인이라고 언급한 선행연구들(오지애, 2015; 유성진, 권석만, 2000; 이영선, 박성연, 2009; 허은정, 2005; Stöber & Joormann, 2005; Stöber et al., 2000)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을 많이 사용할수록 걱정 또한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이 경험을 처리하는 과정을 왜곡하기 쉽게 하고, 우울·불안 등의 심리증상을 야기한다는 선행연구(김보미, 유성은, 2012; 김성주, 이영순, 2013; 최우경, 김진숙, 2014; Garnefski & Kraaij, 2007), 아동의 인지적 전략이 걱정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힌 Hirsh 등(2006)

의 연구결과 및 적응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의 반응을 강화시키는 정서조절(Aldea & Rice, 2006)에서 결함을 보이면 걱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연은지와 김향숙(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청소년의 가족분화와 걱정의 관계를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분화가 걱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보다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가족분화와 걱정을 연결하는 하나의 통로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청소년들의 가족분화수준이 떨어지면, 즉 부모와의 관계에서 유대감을 유지하는 동시에 자율성을 획득하는 것이 어렵게 되면, 자신의 주관이 아닌 부모가 부과한 승인조건에 따라 자신을 평가하거나 염려하는 부적응적인 완벽주의를 보이기 쉽고, 결국 실제적인 자기와의 불일치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됨으로써 심리적인 불편감과 자신의 실수나 실패 등에 대한 걱정이 증폭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내담자가 과도한 걱정을 호소하는 경우, 상담자는 이들이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함께 지니는 것은 아닐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청소년 내담자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에 내재된 비현실적이고 극단적인 기준 및 비합리적 사고들을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기준 및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사고로 대체시키는 개입전략을 사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대상 및 연구모형과 완전히 일치하는 선행연구가 없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구조방정식의 2단계 접근법은 탐색적 방법이므로 추후에 새로운 자료로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

셋째, 청소년의 가족분화와 걱정의 관계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분화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통하여 걱정에 영향을 주는 발생적 기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가족분화가 걱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보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지양하고,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함으로써 가족분화가 걱정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 및 심리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겠다. 그런데, 본 연구와 같은 모형을 이용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가 불가능하고, 더욱이 앞서서도 밝힌바와 같이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높은 관련성으로 인하여 본 연구의 최종모형에서 가족분화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관계의 방향이 바뀌는 결과가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며, 추후 연구를 통해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를 재검증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넷째, 청소년들이 가족에서의 분화가 잘 이루어질수록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덜 나타났고,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덜할수록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을 덜 사용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걱정도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가족분화가 걱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이 이중매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가족분화와 걱정 간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이 걱정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이는 완벽주의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비롯한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서 나온 학습된 행동이고(김지훈, 2006; Barrow & Moore, 1983; Pacht, 1984),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지닐수록 자기비난(손은정, 2010; 이은지 외, 2013; Gilbert et al., 2006) 및 파국화(정지현, 2000; Davey & Levy, 1998) 경향을 보이며,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우울·불안 등의 심리증상을 야기한다는 선행연구(김보미, 유성은, 2012; 최우경, 김진숙, 2014; Garnefski & Kraaij, 2007; Hirsh et al., 2007)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자기비난 및 심리적 고통을 거쳐 자살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Baumeister(1990)의 연구 및 지나친 완벽주의적 특성으로 인해 걱정이 많은 청소년들을 상담할 때, 이들의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감소시키는 것이 유용함을 제시한 연은지와 김향숙(2013)의 연구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외에도 대학생들의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이들이 파국화, 자기비난, 타인비난, 반추와 같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함으로써 더욱 불안의 강도가 증폭된다는 것을 밝힌 김성주와 이영순(2013)의 연구와도 흐름을 같이 한다. 결국 본 연구를 통해 가족분화수준이 떨어지는 청소년의 경우, 높은 이상적 자기를 설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자기와의 불일치를 경험하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 수 있고(김현정, 2007; 유성진, 권석만, 2000), 이러한 불일치가 일으키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여 정서를 조절할 가능성이 증가하여(김성주, 이영순, 2013; 연은지, 김향숙, 2013), 결국 자신의 실수나 실패 등에 대한 걱정의 빈도와 강도가 더욱 가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부적응적 완벽주의라는 개인의 특성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라는 의식적인 정서조절 과정에서의 인지적 오류가 청소년의 과도한 걱정을 발생시키고 유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친밀성과 자율성의 균형을 찾아가도록 도와 가족분화수준을 높이는 것이 걱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상 명확한 경계선을 가진 기능적인 가족환경에서 가족원은 자율적이면서도 필요할 때면 서로의 행복을 위하여 협동·지지하며 다른 가족 구성원의 삶에 관여할 수 있다(정문자 외, 2014). 즉, 가족은 응집력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각 개인이 개별화를 추구하도록 하는 것, 궁극적으로 가족이 응집성과 개별성 양쪽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김유숙, 2015). 따라서 상담 장면에서 걱정을 호소하는 청소년을 만날 때, 무엇보다 가족분화수준을 파악하고 가족분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상담 전략을 세우며 가족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겠다. 제석봉(1989)도 한 개인의 부적응 행동이 가족 성원들의 역기능적 상호 작용에서 기인하고, 치료도 증상을 가진 개인보다 가족 성원들의 역기능적인 관계를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미 형성된 애착을 변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처럼(현미나, 채규만, 2012), 가족분화 역시 단기간 내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가족분화에 대한 탐색이나 치유에 초점을 맞추고 통찰을 촉진하는 것만으로 걱정을 낮추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가족분화가 걱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을 거쳐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과도한 걱정을

보이는 청소년들을 상담할 때, 본 연구결과를 통해 매개변인으로 확인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변인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겠다. 즉, 상담 장면에서 청소년의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파악하고, 청소년 내담자들이 높은 이상적인 기준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궁극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기준이 목표의식이 되어 청소년들의 적응을 촉진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들이 갈등 및 스트레스 상황에서 주로 사용하는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파악하여 좀 더 적응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학습할 수 있도록 개입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의 고등학교에 편중하여 자료수집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청소년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나아가 원가족에서의 분리가 더욱 촉진되는 성인 진입기와 성인기를 대상으로 실시했을 때는 그 결과가 어떠한지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경로의 타당성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겠다. 뿐만 아니라 Gilligan(1982)은 건강하지 못한 가족 배경이 남성보다 여성의 정서적 건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Rossi와 Rossi(1990)는 부모와 자녀간의 정서적 유대감, 접촉빈도, 상호도움을 주고받는 정도를 결정하는 데 성별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성별을 고려하여 걱정에 미치는 가족분화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는 가족분화, 부적응적 완벽주

의,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걱정을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런데 청소년의 주관적인 자기보고는 실제 자신의 모습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자기방어나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고의적으로 왜곡된 응답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연구방법을 다양화하여 연구변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부모님의 지각, 부모님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지각으로 가족분화를 파악하여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분화된 정도가 다를 수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이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넷째, 본 연구는 예측변인 매개변인, 준거변인을 동일한 시기에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한 횡단연구이다. 따라서 이들의 인과관계에 대해 분명한 결론을 내리기에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 간에는 개념적 순환이 있을 수 있다. 즉, 걱정이 많기 때문에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더 보일 수 있고, 부적응적 완벽주의도 더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연구가 되려면 변인들 간의 시간적 순서를 고려한 단기 종단 연구를 통해 이들의 인과 관계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부연하면, 본 연구가 기본적으로 상관연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변인 간 양방향의 인과적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인과적 관계가 적합한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거나 역방향으로 연구 설계를 하여 비교해보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인으로 부적

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가족분화가 걱정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관련될 수 있는 다른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충분한 이론적 고찰과 경험적 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가족분화와 걱정을 매개할 수 있는 또 다른 변인들을 탐색하고, 이러한 변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가족분화와 걱정의 기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상 언급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걱정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을 상담할 때, 실질적인 치료적 효과를 이룰 가능성이 큰 심리내적 영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본 연구의 결과가 걱정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을 상담하는데 있어 치료적 접근 및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문희, 정은의 (2003). 걱정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사고억제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3), 439-460.
- 고희경 (2006). 완벽주의와 분노표현 양상 간 관계에서의 인지적 대처전략의 매개효과 검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석만 (2015). 이상심리학의 기초-이상행동과 정신장애의 이해. 서울: 학지사.
- 김동직 (1999). 문화적 맥락에서 본 개별성-관계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병직, 이동귀, 이희경 (2012). 사회부과 완벽주의 및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우울 간의 매개변인 탐색: 사회불안과 반추. *상담학연구*, 13(2), 417-436.
- 김병화 (2013). 부부의 자기분화가 가족분화와 결혼만족도 및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보미, 유성은 (2012). 대인관계 외상 경험자들의 사회적 유대감, 정서 조절과 자살생각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1(3), 731-748.
- 김성주, 이영순 (2013). 대학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인지적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3), 1919-1938.
- 김소희 (2004). 스트레스 사건,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아름, 조한익 (2015).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정서조절양식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6), 297-314.
- 김용남 (2014). 고등학생의 완벽주의와 인지적 정서조절방략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태 (2000). 가족치료이론. 서울: 학지사.
- 김유숙 (2015). 가족상담-제 3판. 서울: 학지사.
- 김정원, 민병배 (1998). 걱정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 및 문제해결방식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83-92.
- 김지훈 (2006). 개인 기준적 및 평가 염려 완벽주의와 가족분화수준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희 (2008). 기혼 남녀의 관계적 자기: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과 가족분화 수준에 따

- 른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현정 (2007). 완벽주의에 대한 인지적 매개모형의 탐색과 인지행동치료의 효과.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원 (2015). 부모의 성인애착과 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 결혼불만족의 매개효과: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궁별희 (2015).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분화 수준과 대인관계 능력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기독교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순현 (2000). 가족의 정서체계 역동성에 관한 연구-성인 자녀 가족과 3세대 가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순현, 한성열 (1999). 가족분화 개념에 대한 새로운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2), 209-222.
- 문경주, 오경자 (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 29-43.
- 메디컬투데이 (2006. 10. 24). 불안한 대한민국...10대 청소년 '불안장애' 급증. <http://media.daum.net/life/health/newsview?newsId=20061024090310122>
- 박상숙 (2013). 개인 가족치료를 위한 애착과 자아분화 이론 연구. 한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현주 (1999). 기능적 완벽주의 집단과 역기능적 완벽주의 집단의 구분 및 특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병렬 (2011). AMOS 19.0 구조방정식 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 설정훈, 박수현 (2015). 해군 장병의 스트레스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정신건강 문제에 미치는 영향-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4(2), 553-578.
- 설희정 (2013). 중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대인불안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신념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성별 간 다집단 분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은정 (2010). 완벽주의가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비난, 신체비교, 신체불만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03-1122.
- 송병호, 최규정 (2000). 다중공선성에 관한 연구. 통계연구소논문지, 2(1), 61-93.
- 송은영, 하은혜 (2008). 청소년의 외상경험, 완벽주의 성향 및 부정적 사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인지행동치료, 8(1), 41-56.
- 신여운, 현명호 (2004). 병리적 걱정을 하는 사람의 걱정에 대한 신념과 대처방략.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2), 45-63.
- 연은지, 김향숙 (2013). 중학생의 완벽주의가 걱정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0(2), 263-281.
- 오지애 (2015).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걱정의 매개효과.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성진, 권석만 (2000). 걱정이 많은 사람들의 성격특징. 심리과학, 9(1), 15-37.
- 유예리 (2005). 청소년의 걱정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신념이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육근영 (2016). 인지 통제력과 우울, 불안 간 관

- 계에서 반복적 사고의 매개효과.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미경 (2006). 청소년의 가족분화와 대인관계 적응: 우울과 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경, 김은정 (2013). 모의 과보호와 청소년의 행동억제기질 및 청소년 걱정과의 관계-지각된 통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2(1), 77-96.
- 이영선, 박성연 (2009). 남녀 청소년의 부적응적, 적응적 완벽주의와 걱정간의 관계: 문제해결 자신감의 증재적 역할. 인간발달연구, 16(3), 113-129.
- 이은지, 서영석, 고은영, 이소연, 최바울 (2013).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자살사고의 관계: 자기비난과 심리적 극통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1), 63-81.
- 이향희 (2012). 기혼 성인자녀의 가족분화수준과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문자, 정혜정, 이선훈, 전영주 (2009). 가족치료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정윤주 (2012). 아동의 자기지향 및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 불안 간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대한가정학회지, 50(1), 15-28.
- 정지현 (2000). 걱정이 많은 사람들의 파국적 사고경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제석봉 (1989).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성현 (2011).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인지적 정서조절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영일 (2016). 상담연구방법의 이해-구조방정식을 활용한 조절효과와 매개효과-. 2016년 한국상담심리학회 동계학술연수 워크샵 자료.
- 최미례, 이인혜 (2003).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자아 존중감의 증재효과와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2), 363-383.
- 최우경, 김진숙 (2014). 대학생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과 좌절된 대인관계욕구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2(1), 1-25.
- 최인재 (2006). 한국의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문화심리학적 고찰. 상담학연구, 7(3), 761-773.
- 한기연 (1993). 다차원적 완벽성: 개념, 측정 및 부적응성과 관련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주연, 박 경 (2011). 대학생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수치심과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8(9), 169-188.
- 허은정 (2005). 심상과제가 불면증이 있는 대학생들의 불면증, 걱정 및 역기능적 완벽주의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미나, 채규만 (2012). 성인애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정서조절 곤란의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4), 69-85.
- 홍세희 (2011). Program 1 구조방정식 모형: 초급. 홍세희 교수의 고급연구방법론 워크샵 자료.
- 황영훈, 박은영 (2003). 애착이론과 자아분화이론의 유사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치료학

- 회지, 11(1), 155-177.
- Aldea, M. A., & Rice, K. G. (2006). The role of emotional dysregulation in perfectionism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 498-510.
- Allison, M. D., & Sabatelli, R. M. (1988). Differentiation and individuation as mediators of identity and intimacy in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3*(1), 1-16.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th edition(DSM-5). Washington, DC: Author.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 411-423.
- Anderson, S. A., & Sabatelli, R. M. (1990). Differentiating differentiation and individuation: Conceptual and operational challenge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8*, 32-50.
- Anderson, S. A., & Sabatelli, R. M. (1992). The differentiation in the family system scales: DIF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0*, 89-101.
- Ballash, N., Leyfer, O., Buckley, A., & Woodruff-Borden, J. (2006). Parental control in the etiology of anxiety.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9*(2), 113-133.
- Barrow, J. C., & Moore, C. A. (1983). Group intervention with perfectionist thinking. *The Personal and Guidance Journal, 61*, 612-615.
- Baumeister, R. F. (1990). Suicide as escape from self. *Psychological Review, 97*(1), 90-113.
- Beidel, D., & Turner, S. (1997). At risk for anxiety: I. Psychopathology in the offspring of anxiety par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6*(7), 918-924.
- Bell-Dolan, D. J., Last, C. G., & Strauss, C. C. (1990). Symptoms of anxiety disorders in normal childre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9*, 759-765.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246.
- Borkovec, T. D., Robinson, E., Pruzinsky, T., & Depree, S. A. (1983). Preliminary exploration of worry: some characteristics and processe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1*, 9-16.
- Brassard, A., Lussier, Y., & Shaver, P. R. (2009). Attachment, perceived conflict and couple satisfaction: Test of a mediational dyadic model. *Family Relations, 58*(5), 634-646.
- Burns, D. D. (1980). Perfectionist's script for self-defeat. *Psychology Today, Nov*, 34-52.
- Chan, W. (2007).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SEM: A sequential model fitting method using covariance-equivalent specification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2), 326-346.
- Cook, W. L. (2000). Understanding attachment security in family contex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2), 285-294.
- Davey, G. C. L. (1994). A comparison of three cognitive appraisal strategies: the role of threat devaluation in problem focused cop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4), 535-546.
- Davey, G. C. L., & Levy, S. (1998). Catastrophic worrying: Personal inadequacy and a

- perseverative iterative style as features of the catastrophizing proces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7, 576-586.
- Disner, S. G., Beevers, C. G., Haigh, E. A., & Beck, A. T. (2011). Neural mechanisms of the cognitive model of depression. *Nature Reviews Neuroscience*, 12, 467-477.
- Fournier, S., Freeston, M. H., Ladouceur, R., Dugas, M. J., & Guvin, M. C. (1996). *Excessive worry and anxiety in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biannual convention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Behavioral Development*, Quebec City, Quebec. Canada.
- Fuster, J. M. (1997). Network memory. *Trends in neurosciences*, 20(10), 451-459.
- Garnefski, N., & Kraaij, V. (2006). Relationships between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depressive symptoms: A comparative study of five specific sampl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 1659-1669.
- Garnefski, N., & Kraaij, V. (2007). Th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Psychometric features and prospective relationships with depression and anxiety in adults.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23, 141-149.
- Garnefski, N., Kraaij, V., & Spinhoven, P. (2001). Negative life ev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al proble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 1311-1327.
- Gavazzi, S. M. (1993). The relation between family differentiation levels in families with adolescent and the severity of presenting problems. *Family Relations*, 42, 463-468.
- Gavazzi, S. M., & Sabatelli, R. M. (1990). Family system dynamics, the individuation process, and psychological development.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5(4), 500-519.
- Gilbert, P., Durrant, R., & McEwan, K. (2006). Investigating relationships between perfectionism, forms and functions of self-criticism, and sensitivity to put-dow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1(7), 1299-1308.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oldman-Rakic, P. S., Chafee, M., & Friedman, H. (1993). Allocation of spatial function in distributed circuits. In T. Ono, L. R. Squire, M. E. Raichle, D. I. Perrett, & M. Fukuda (Eds.), *Brain mechanisms of perception and memory: From neuron to behavior* (pp. 445-456).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ross, J. J. (2001). Emotion regulation in adulthood: Timing is everything.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0(6), 214-219.
- Hair, J. F., An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 C. (1992). *Multivariate Data Analysis with Readings*.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Hamilton, C. E. (2000).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of attachment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1, 690-694.
- Hirsch, C. R., Clark, D. M., & Mathews, A. (2006). Imagery and interpretations in social phobia: Support for the combined cognitive biases hypothesis. *Behavior Therapy*, 37(3), 223-236.
- Hofmann, S. G., Heering, S., Sawyer, A. T., &

- Asnaani, A. (2009). How to handle anxiety: The effects of reappraisal, acceptance, and suppression strategies on anxious arousal.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7, 389-394.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y Measurement*, 63(4), 636-654.
- Hunt, S., Wisocki, P., & Yanco, J. (2003). Worry and use of coping strategies among older and younger adults. *Journal of Anxiety Disorder*, 17, 547-560.
- Kertz, S. J., & Woodruff-Borden, J. (2011). The Developmental Psychology of Worry. *Clinical Child Family Psychology Review*, 14(2), 174-197.
- Knudson-Martin, C. (1994). The female voice application s to Bowen' s family systems theor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0(1), 35-46.
- Last, C., Hersen, M., Kazdin, A., Francis, G., & Grubb, H. (1987). Psychiatric illness in the mothers of anxious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4(12), 1580-1583.
- Lewis, M., Feiring, C., & Rosenthal, S. (2000). Attachment over time. *Child Development*, 71(3), 707-720.
- MacCallum, R. C., Browne, M. W., & Sugawara, H. M. (1996). Power analysis and determination of sample size for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Psychological Methods*, 1(2), 130-149.
- Marsh, H. W., Martin, D., James, P., & Richard, W. (2004). Why multicollinearity matters: A reexamination of relations between self-efficacy, self-concept, and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6(3), 518-522.
- McLeod, B., Wood, J., & Weisz, J. (2007). Examining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ing and childhood anxiety: A meta 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7(2), 155-172.
- Mennine, D. S., Heimberg, R. G., Turk, C. L., & Fresco, D. M. (2005). Preliminary evidence for an emotion dysregulation model of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3(10), 1281-1310.
- Muris, P., Meesters, C., & Gobel, M. (2001). Reliability, validity, and normative data of the 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in 8-12-year-old-children.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32(2), 63-72.
- Olatunji. B. O., Scottenbauer, M. A., Rodriguez, B. F., Glass, C. R., & Arnkoff, D. B. (2007). The structure of worry: relations between positive/negativ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the 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1(4), 540-553.
- Pacht, A. R. (1984). Reflections on perfection. *American Psychologist*, 39, 386-390.
- Peckham, A. D., McHugh, R. K., & Otto, M. W. (2010). A meta-analysis of the magnitude of biased attention in depression. *Depression and Anxiety*, 2, 1135-1142.
- Rodriguez, C. M., & Richardson, M. J. (2007). Stress and anger as contextual factors and preexisting cognitive schemas: Predictiong parental child maltreatment risk. *Child Treatment*, 12(4), 325-337.
- Roemer, L. & Orsillo, S. (2002). Expanding our

- conceptualization of and treatment for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Integration mindfulness/acceptance-based approaches with existing cognitive-behavioral models.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9, 54-68.
- Rosser, S., Issakidis, C., & Peters, L. (2003). Perfectionism and social phobia: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tructs and impact on cognitive behavior therap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7(2), 143-151.
- Rossi, A. S., & Rossi, P. H. (1990). Of human bonding: parent-child relations across the life course. New York: Aldine de Gruyter.
- Rudolph, S. G., Flett, G. L., & Hewitt, P. L. (2007). Perfectionism and deficits in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Journal of Rational-Emotive & Cognitive-Behavior Therapy*, 25(4), 343-357.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29.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laney, R. B., Ashby, J. S., & Trippi, J. (1995). Perfectionism: Its measurement and career relevanc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3, 279-297.
- Sroufe, L. A. (2005). Attachment and development: A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from birth to adulthood.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7(4), 349-367.
- Stöber, J., Tepperwien, S., & Staak, M. (2000). Worrying leads to reduced concrete-ness of problem elaborations: Evidence for the avoidance theory of worry. *Anxiety, Stress, and Coping*, 13, 217-227.
- Stöber, J. & Joormann, J. (2001). Worry, Procrastination, and Perfectionism: Differentiating Amount of Worry, Pathological Worry, Anxiety, and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5(1), 49-60.
- Tamura, T., & Lau, A. (1992). Connectedness Versus Separateness: Applicability of Family Therapy to Japanese Families. *Family Process*, 31, 319-340.
- Watkins, E. R. (2008). Constructive and unconstructive repetitive thought. *Psychological Bulletin*, 134(2), 163-206.
- 원고접수일 : 2016. 06. 14.
수정원고접수일 : 2016. 08. 05.
최종게재결정일 : 2016. 08. 10.

Family Differentiation and Worry of Adolescents: the Mediating Effect of Maladaptive Perfectism and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Hye Weon Kim

Jee Hyon Lim

Jee Yon Le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confirm the mediating effect of maladaptive perfectism and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family differentiation and worr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494 high school students, and were analyzed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main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 First, family differentiation had direct effect on maladaptive perfectism and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maladaptive perfectism had direct effect on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In addition, maladaptive perfectism and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had direct effect on worry. Second, maladaptive perfectism significant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differentiation and worry. And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ignificant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differentiation and worry. In Addition, family differentiation had an effect on worry through the sequential double mediation of maladaptive perfectism and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 family differentiation, worry, maladaptive perfectism,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mediational effect